

# “네이버 기사배열, 편집인 + AI 조합이 바람직”

## 네이버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

편집 알고리즘 공개·검증 필요  
언론사 뉴스 ‘전달 역할’에 집중  
가짜뉴스·악성댓글 대처에 총력

포털업체들이 게시하는 뉴스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포럼의 결과물이 나왔으나 논란을 잠재울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한 논의사항과 활동결과의 발표를 위해 포럼 공청회를 1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5개월간 이뤄진 내용이 공개됐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에서 포럼이 다룬 주요 쟁점은 ▲완전 자동화 편집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문제 ▲편집 방향성 ▲네이버 기사 배열 관련 편집 원칙 및 방향성 제안이다.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 공청회가 1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 네이버 역할 부분에서는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관련 정책 ▲네이버 뉴스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공개성, 소통의 문제 ▲네이버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관계의 문제 ▲네이버의 정체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용자 조사 요약을 발표한 김경희 위원은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네

이버(39%), 다음(38.5%), 구글(32.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이슈 파급과 여론형성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7%, 그렇지 않

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6.5%, 언론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조사되며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의 기사 배열 방식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인공지능(AI)이 조합해 기사배열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하는지 안 하는지와, 포털서비스를 언론으로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표본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김 위원은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 배열에서의 투명성 확보, 저널리즘 원칙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성철 공론화포럼 위원장은 네이버 기사 배열과 관련한 제안에서 9가지 원칙 중 하나로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해

언론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확산, 지역 저널리즘의 약화 등 뉴스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술적, 경영적, 법적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언론사,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시했다.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포럼은 지난 1월 12일,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이용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발족한 협의체다.

지난 5개월 간, 월 2회의 정례 회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리뷰 스터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자체 연구 조사 ▲네이버뉴스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해왔다.

글·사진=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중기부

예비 청년 창업자 1500명  
최대 1억원 ‘바우처’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해 기술창업을 돕는다.

특히 창업상품권, 즉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품구매나 재료비, 마케팅비 등 창업시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0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15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하되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보건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원회(핀테크 등)를 비롯해 10개 산하기관이 뽑는다.

또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엔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각각 지원 대상을 추린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대1로 연계한 이후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

다만 최대 1억원인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카드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작년 사이버 공격 피해 77조… GDP 8%·기업당 300억”

## 한국MS 사이버보안 보고서

“간접적·추가적 손실이 더 심각”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8일 ‘사이버보안 위협 보고서’ 발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분석과 함께 실제 기업 내부에서 보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 보안의 실태를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최신 버전에서 공개된 동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주목되는 동향은 ▲봇넷(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PC를 좀비 PC로 감염시킨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대의 컴퓨터에 지속해서 영향) ▲피싱(사이트와 메일로 위장해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 ▲랜섬웨어(문서뿐 아니라 운영체제까지도 모두 암호화해 금품요구) 등으로 3가지다. 사이버범죄에는 이 3가지 유형이 북



김기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담당 부장이 ‘디지털 세계의 위협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국내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록스트 앤 셸리번과 공동으로 조사한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기업이 입은 직간접 손실액은 약 720억달러(약 77조원)로 한국 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한다. 국내 대형 기업

의 경우 기업당 평균 약 300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한 최승환 프록스트 앤 셸리번 이사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빙산 효과’로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 손실보다 빙산 아래 감춰져 있는 간접적·추가적 손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기업의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고객 소실 및 기업 평판 훼손, 일자리 손실과 같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보안 의식에 대한 실태도 제공했다. 인식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보안사고를 경험했거나(10%), 사이버 공격 사고여부조차 모른다(29%)고 응답한 경우가 39%에 달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에 가장 큰 과제 중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파트너를 통해 구현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략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월평균 약 9억3000만 개의 사이버 위협을 분석, 감시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안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승환 이사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로 차별화함과 동시에 조직 내 교육과 같은 보안 기반 투자, AI 및 자동화를 통한 보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조언했다.

글·사진=구서훈 기자

# 태양광·원격점포관리… 에너지 절감 나선 편의점

## GS25 “5년간 전기료 500억 감축”

최적화된 관리로 소평환경도 개선

GS25가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점포 관리 시스템(SEMS)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한다.

GS25는 지난 4월 제주도 지역 2개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제주도 지역을 시작으로 평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GS25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경우 연간 약 7800KW, 금액으로 환산시 연 약 66만원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GS25는 지난 2015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SEMS를 구축하고 현



SEMS가 구축된 GS25 직영점에서 시설지원팀과 점포 직원이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전력사용량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GS25

재 4700개 점포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SEMS는 본부의 메인 서버를 통해 전국 점포의 냉장·냉동 장비의 온도 및 냉난방기기, 간판 점등, 실내조명 조절, 전력 사용 관리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

도록 IoT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최첨단 종합 점포 관리 시스템이다.

SEMS를 통해 경영주와 본부의 시설 관리 담당자는 모바일이나 웹으로 점포의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실시간 냉장비 온도 확인 및 실내 환경 컨트롤, 장비의 이상 여부 조기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GS25는 각 점포의 조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에너지 절감은 물론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GS25는 점포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단가는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방냉동설비를 본부비용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S25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를 맞아 태양광 발전 설비,

고효율 냉방/냉동 설비 그리고 SEMS가 에너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SEMS를 구축할 경우 GS25 한 점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7%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계약 전력을 낮추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금액으로 환산 시 연간 약 13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GS25는 향후 2022년까지 SEMS를 전 점포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태양광 발전, 고효율 장비 도입까지 더하면 향후 연평균 약 100억원, 5년간 총 500억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홍 GS리테일 시설지원팀장은 “GS25는 동종업계 최초로 SEMS를 설치하는 등 점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